2026.11.10

[국내주식 마감 시황]

이재원 Market Analyst | jaewon2.lee@yuantakorea.com
김세빈 Research Assistant | sebin2.kim@yuantakorea.com

11월 첫 외국인 형님들 순매수와 매수 사이드카 발동

KOSPI 5,239pt(+4.4%), KOSDAQ 668pt(+4.5%)

① 해외 시황 — 미국 반도체 급등, AI 투자와 유가 부담 완화

- 간밤 미국 주식시장은 다우 +2.2%, S&P500 +2.4%, 나스닥 +2.7%로 일제히 급등(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6.9%, AMD +13.3%, 브로드컴 +8.8%, 마이크론 +6.3%). 지난주 과도했던 낙폭에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가운데 AI 투자와 지정학적 위험을 둘러싼 우려가 일부 완화된 영향. 특히 골드만삭스 데이비드 솔로몬 CEO는 최근에도 AI 인프라 관련 자본시장 거래가 활발하며 투자 수요가 여전히 강하다고 언급. 코어위브 등 일부 기업의 자금조달 우려가 AI 산업 전체의 투자 위축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투자 수요가 강하다는 것과 개별 기업의 차입비용이 안정됐다는 것은 구분할 필요

- 미국과 이란의 협상 기대도 투자심리 개선에 기여. 트럼프 대통령이 당장 추가 군사작전에 나설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WTI는 85달러선가까지 하락. 아직 양국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추가 충돌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기대가 유가에 반영. 기존에 주식시장을 압박했던 고유가와 물가 상승 부담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 엔비디아는 젠슨 황 CEO 관련 불확실성으로 4.2% 하락했지만 CEO의 사생활 리스크 였기에 개별 기업에 국한된 하락. 반도체 업종 전체의 강한 반등을 막지는 못했음

② 수급 — 외국인 8거래일 만에 순매수, 반등에 힘을 보탠 기관

- KOSPI KRX+NXT 합산 기준 개인 1.8조원 순매도, 외국인 6,672억원, 기관 7,158억원 순매수. 외국인은 지난 7거래일간 이어졌던 순매도 행진을 끝내고 8거래일 만에 순매수 전환. 기관에서는 투신 +3,462억원, 금융투자 +2,236억원, 사모펀드 +2,009억원 순매수한 반면 연기금은 1,097억원 순매도.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도 8,510억원 순매수. 특히 외국인 순매수 전환은 중요 반등 조건. 외국인이 하루 순매수했다고 지난 한 달간 지속된 수급 공백이 해소된 것은 아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외국인 매수가 하루로 끝나지 않고 반도체 대형주 중심으로 지속되는지 여부

③ 특징업종 — 데이터센터, 민주당이 중단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 **1) 반도체:** 삼성전자 +4.7%, SK하이닉스 +6.7% 상승하며 지수 반등 주도. 전일 미국 반도체 업종 급등과 함께 최근 과도한 주가 하락에 대한 저가 매수세 유입(진짜 주주환원 수익률로만 봐도 낙폭은 과도합니다) TSMC가 엔비디아의 요청으로 차세대 DRAM 개발을 검토한다는 보도에 대해 '기존 파운드리 사업에 집중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도 주목할 부분
  한편 젠슨 황 CEO 관련 의혹을 계기로 미국 의회에서 대중국 첨단 반도체 수출통제 강화 요구가 다시 부각. 관련 법안에는 AI 반도체의 중국 수출뿐 아니라 반도체 제조장비 통제와 해외 반도체 추적 강화도 포함. 실제 입법까지는 확인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대중국 기술 통제가 완화되기보다 강화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 이는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선단공정 개발에 부담. 민주당은 친중이 아님

- **2) 전력기기·건설:** HD현대일렉트릭, 효성중공업, LS ELECTRIC 등 전력기기 강세. 건설과 기계 업종도 각각 7%대 상승. 미국 상원이 데이터센터와 에너지 인프라의 인허가 절차를 단축하는 BAAJA법을 73대25로 절차표결 통과. 해당 법안은 인허가 기간을 줄이는 대신 데이터센터 개발사가 전력망 확충비용을 더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 아직 최종 입법까지는 갈 길이 남았지만, AI 데이터센터를 무조건 막기보다 건설에 필요한 조건을 정비하는 방향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④ 이벤트 — 미국 물가와 AI 투자 지속성 확인

- 1) 미국 10월 CPI(11/10), PPI(11/13) 2) 코어위브 3분기 실적(11/10) 3) 국내 옵션만기 및 MSCI 정기 리뷰(11/12 전후) 4) 엔비디아 실적(11/17 예정) 5) 12월 FOMC(12/9). 이번 주 미국 물가지표는 금리인상 확률을 결정할 핵심 변수(이나 현재 시장은 시장금리에 큰 관심이 없다)

⑤ 시황 — 일단 반등에는 성공, 연속성이 중요

- 금일 KOSPI는 전일 미국 반도체 업종 급등에 힘입어 +4.6% 상승 출발. 장중 5,301pt(+5.6%)까지 상승하며 양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 발동. 이후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오후 한때 5,175pt까지 밀렸으나 5,239pt(+4.4%)로 마감. 지난주 이틀간 11% 가까이 급락했던 시장이 이제야 반등다운 반등에 성공한 하루. 특히 전일 미국 반도체주 강세에도 국내 시장만 하락했던 것과 달리 오늘은 외국인까지 순매수에 나서면서 반등의 폭이 커졌다는 점이 중요

- 그동안 국내 주식시장은 미국과 일본, 대만 등 주요국 대비 AI 투자 위축 우려를 더 크게 반영했던 상황(1개월 수익률 니케이 -10.8%, 대만 가권 -13.4%인데 KOSPI -18%). 메모리가 AI 인프라의 가장 큰 수혜주 중 하나였으며 메모리 외에도 전력기기, 원자력 등 인프라 관련주가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로 포진했기 때문. 이번 반등 역시 급락 이전 수준을 회복했다기보다 벌어졌던 격차를 일부 좁힌 정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장중 상승폭을 일부 반납한 만큼 한 번의 급등으로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오늘은 반도체 대형주뿐 아니라 건설, 전력기기, 2차전지 등으로 매수세가 확산됐고 외국인도 순매수 전환. 전일과 비교하면 반등의 내용과 수급의 질은 개선

- 블루쓰나미) 중간선거 이후 시장이 우려했던 데이터센터 규제 역시 실제 투자 중단보다 인허가 지연과 비용 부담 증가에 가까운 문제. 민주당이 양원을 장악했다고 AI 산업에 필요한 데이터센터 건설 자체를 막을 가능성은 제한적. 골드만삭스 CEO 역시 미국 내 건설이 어려워지면 데이터센터가 해외로 이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음. 미국이 AI 패권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데이터센터 건설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선택이 아니라는 판단
  물론 규제 우려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을 것. 실제 인허가 규정과 비용 분담 방식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관련 뉴스에 따라 주가가 흔들릴 가능성. 그러나 아직 확인되지 않은 2028년 데이터센터 투자 지연 가능성을 당장의 메모리 이익 훼손으로 연결하는 것은 여전히 과도한 해석. 2027년 이익 전망이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주가만 크게 하락했다는 점에서 기존의 낙폭 과대 정상화 판단을 유지
  특히 현재 시장이 2028년 이후 메모리 이익의 지속성을 의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창출한 현금을 주주에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지가 중요. 시장이 미래 이익을 믿지 못하더라도 실제 배당과 자사주 매입·소각은 주주가 확인할 수 있는 가치이기 때문. 향후 잉여현금흐름 증가와 주주환원 확대가 현실화된다면 극단적인 저평가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판단. 결국 중요한 것은 낮은 PER 자체보다 이익이 현금으로 남고, 그 현금이 주주에게 돌아오는지 여부. 2027년에 대한 이익 전망은 메모리 비관론자조차 높게 유지하고 있는 상황

- 코어위브 실적) 또 하나의 중요 이벤트인 코어위브 실적(한국시각 내일 아침 7시) 코어위브의 3분기 매출 예상치는 약 35억 달러(+159% YoY). 회사가 제시한 조정 영업이익 가이던스는 2억~2.6억 달러인 반면 이자비용은 8.6억~9.4억 달러에 달하는 상황. 2026년 연간 CAPEX 전망도 350억~390억 달러에 이르는 만큼 매출 성장보다 **현금흐름과 투자 재원 확보가 관건**. 높은 수주잔고가 실제 매출로 전환되는 속도와 추가 차입비용, 2027년 투자계획의 변화에 주목할 필요. 매출이 예상치를 웃돌더라도 **자금조달 부담이 더 커진다면 시장은 이를 달갑게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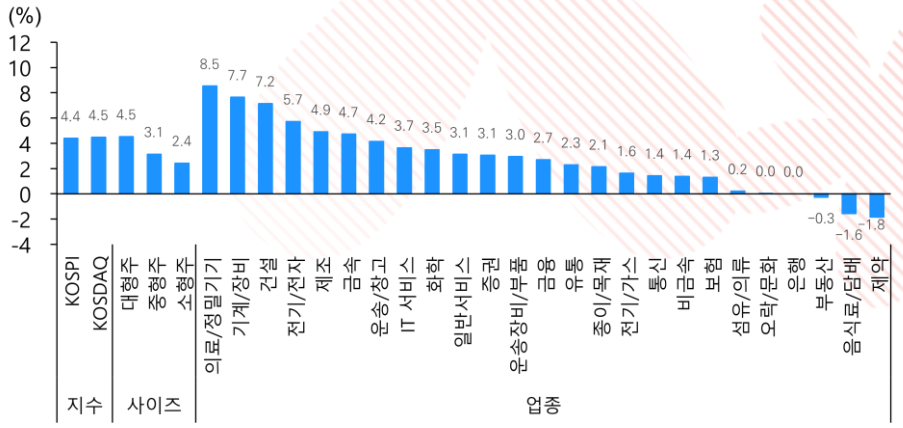
- 전략) 오늘 외국인 순매수 전환과 반도체 대형주 반등으로 기존에 제시한 반등 조건 중 일부 충족. 남은 것은 외국인 매수의 연속성과 반도체 상대강도 회복, 그리고 2028년 이익 전망에 대한 신뢰. 특히 내일 코어위브 실적은 AI 투자에 필요한 자금조달 여건이 실제로 악화되고 있는지 확인할 좋은 기회. 아직 추세적인 상승을 단정하기에는 이르지만 이익 전망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상황에서 극단적인 주가 하락을 계속 정당화하기도 어려움. 기존 반도체 대형주 Core 보유 전략을 유지하며, 신규 비중 확대는 외국인 수급과 AI 신용위험의 변화를 확인하면서 단계적으로 대응. 지금은 지나간 급락에 겁먹기보다 과도하게 할인된 기업가치를 다시 살펴볼 시점

당일 투자자별 순매수대금

(단위: 억원)	KOSPI	KOSDAQ
기관	4,769	2,151
외국인	4,139	-1,465
개인	-13,786	-573
거래대금	161,788	44,161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

일간 수익률



자료: 인포맥스, 유안타증권 리서치센터

- 이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타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함. (작성자: 이재원)
- 당사는 동 자료를 전문투자자 및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의 투자를 권유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참고 자료입니다. 본 자료는 금융투자분석사가 신뢰할 만 하다고 판단되는 자료와 정보에 의거하여 만들어진 것이지만, 당사와 금융투자분석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 자료를 참고한 투자자의 투자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또한, 본 자료는 당사 투자자에게만 제공되는 자료로 당사의 동의 없이 본 자료를 무단으로 복제 전송 인용 배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